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11주년 추모강연, 2001.5.8.

## 古下 宋鎮禹先生의 건국을 위한 준비

이완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정치학 박사)

고하 송진우 선생의 민주건국을 위한 준비(실력배양론): 세계대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교육자이자 준비론자의 면모/교육자, 언론인, 항일투사, 정치인)

준비: 탁견

(정치적 식견과 수완이 출중한 지도자

한국(보수)정당의 비조(鼻祖)요 태두)

### 고하선생님을 둘러싼 두 가지 잘못된 평가-신화

1) 해방직전에 은둔만?: 건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2) 찬탁에 가까운 주장(훈정)을 했기 때문에 암살.

① 흔히 몽양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들어 고하 송진우 선생님은 건국을 준비하지 않고 은둔만 하고 있었다고 비판:

그러나 고재욱 선생은 『고하송진우선생전』(서울: 동아일보사, 1965), “서(序)”에서 “세계대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사의 진운에 대한 예리한 선견”은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그가 준비하지 않았을 리가 없음.

준비 안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세계관에 입각해 준비: 국민대회준비회 결성, 건준의 실패 예견.

일제시대부터 준비-실력배양에 철저 (교육자-언론인).

고하같은 실력배양론자-준비론자가 준비 안하고 은둔만 할 수는 없었음.

누구보다도 현황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음.

해방직전에는 일제가 패망할 것을 국내에 있던 누구보다도 먼저 확실하게 알고 있

있음.

㉠ 단파방송사건과

㉡ 1944년 말 설의식

㉢ 1945년 5월 장철수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 입수  
따라서 누구보다 더 먼저 준비.

정권 인수 체제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평소에 면밀히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음 (정치인).

무책(無策)이 상책이라고 말 한 것은 수사(修辭)이며 공식적인 언명임(준비론자로  
서의 당연한 귀결 아님).

패전국 일본인이 아닌 승전국인 연합국에게서 정권을 인수받아야 하고 임시정부를  
비롯한 해내외의 민족 총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것은 바로 ‘국민대회’ 방식: 좌익의 인민대회 방식에 비견됨.

민족의 총의를 모으고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를 통해 정부 구성.

이를 위해 국민대회준비회 발기: 철저한 준비이며 국제정세의 현실을 직시한 면밀  
한 구상.

만약 이러한 국민대회가 열려 모든 역량이 집결되고 연합국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  
었다면 분단과 전쟁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건준의 실패를 예견: 건준-인공이 연합국의 대표격인 미국으로부터 부정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임.

바람직한 민주건국의 영도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남한에 국한해 본다면 우익진영간의 대립을 지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음:  
현재의 남남대립 지양.)

㉣ 찬탁 때문에 암살

암살의 동기가 훈정?

이는 초대 국무총리감이며 한국정치의 거목을 제거하는 반대파 암살의 정쟁을 호도  
하려는 것임.

이승만-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거목이기에 가장 먼저 암살당함.

당시는 양극화된 구조는 아니었음.

찬탁-반탁 양극 구조(1946년 1월 2일 이후)는 아직 아니었음.

인촌 선생과 함께 건국을 주도하셔서 큰일을 하셨을 텐데 아쉽다.

**교육자이자 준비론자의 면모 (1890-1945)**

온건론 - 교육중심주의, 계몽주의, 신중론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맺어짐. 고하 선생 15세 되던 해 담양학교를 세웠던 부친 송훈 선생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함. 실력배양론, 자강운동론의 사상적 틀을 형성.

애국계몽운동적 교육과 언론 사업에 정진.

1910년 봄 20세 되던 해 고하는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입학 8월 합방조약 체결 임박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귀국, 송훈 옹은 흥분하는 고하를 실력배양론 전술의 하나인 기회론의 입장에서 진정시킴.

1918년 만 28세 되던 해 고하는 인촌에 이어 중앙학교 제10대 교장에 취임.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엿보자는 기회론을 역설. 1919년 3·1독립운동을 일으킴.

1920년 10월 담양에서 학교설립기금운동을 벌이다가 그 해 겨울 담양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냄: 이 때 구국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국제정세와 연계관계를 지닐 것과 해외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할 것을 결심함.

언론인-교육자로서 독립운동을 함.

무장투쟁적 독립운동은 아니었으나 민족의 혼을 지키는데 기여함

해방직전의 활동: 일제필망의 신념 가짐.

병을 핑계로 은둔

1944년 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소오 설의식(小梧 薛義植)(광산에 중사하면서 단파라디오를 들어옴<sup>1)</sup>): 김재중(金載重)을 통해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 약속 소식 전해 줌.<sup>2)</sup>

일본 외무성 사무관 장철수(張徹壽)가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 전후로 고하를 찾아와 해외 사정에 대해 전해 줌.<sup>3)</sup>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일제 패망 예견했음. 그러나 대다수의 인사들은 연합국의 분할 등 논의에 대해서는 잘 모름.

그러나 고하는 해방직후 여러 인사들에게 연합국이 상륙 전이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정세 관망을 당부했다.<sup>4)</sup>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처사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1) 손세일, “송진우,” 『한국근대인물백인선』 (서울: 동아일보사, 1970), p. 258.

2)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19; 김학준, 『고하송진우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274.

3) 김학준, 『고하송진우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p. 274-275.

4) 심지연 교수는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정국의 주도권을 몽양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심지연, “고하 송진우의 활동과 정치이념,” 『해방정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한국 정치 이념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주최,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후원 정치리더쉽 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년 9월 2일, pp. 2-3. 그런데 결과적으로 몽양의 건준과 인공도 미군정에 의해 부인 당하므로 고하의 노선은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항복한 후에 연합국과 논의하여 건국을 한다 해도 조금도 늦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sup>5)</sup>

행정권을 이양 받은 것은 심부름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몽양의 경거망동을 타이름.<sup>6)</sup>

국민대회준비회 결성: 평소에 구상하고 있던 정권 인수 체제.

아무런 구상과 준비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음.

“연합국이 들어와 일본이 완전히 물러나고 해외에 있던 선배들과 손을 잡은 후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sup>7)</sup>

평소에 구상하고 있던 정권 인수 체제를 국민대회준비회(위원장 고하)로 구성하여 몽양의 건국준비위원회와 대립.<sup>8)</sup>

1945년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 소집했다.

평남 도지사의 행정권 이양 제의에 대한 고당 조만식(古堂 曹晩植)의 고하에 대한 의견 청취에 고하는 "개인의 자격으로 행정권을 받지 말고 민중대회를 열어 민중의 손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함.<sup>9)</sup> '국민대회를 준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민중이 승인하지 않는 지도자는 일종의 괴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함.<sup>10)</sup>

연합국과 민중만이 정권을 줄 수 있으며 일본 정부나 한 개인이 정권을 주고받을 수 없음.<sup>11)</sup>

해내-해외의 민족 총역량을 집결.

임시정부(3·1운동)의 법통을 지지<sup>12)</sup> 임정봉대: 3·1운동 이래의 정통정부.

일제필망론.

대책은 무책: 독립을 찾아가는 것이 대책이므로 이러한 명백한 대책은 우리 전체가 실현시켜야 할 계획인 까닭에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다는 것.

민족(주의) 진영의 총 집결체인 한국민주당 수석총무(사실상의 당수).

흔히 알고 있듯이 배타적이고 민족진영만의 지도자는 아니었음.

우리 모두의 지도자.

원칙을 지키면 사회주의도 포용 대상.

5)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46.

6)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39.

7)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47.

8)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48.

9)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40.

10)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40.

11)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50.

12)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52.

단지 원칙을 강조해 원칙 면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태도(주건의 정립)를 보였으므로 배타적이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일 뿐이다.

호랑이: 한민당 시절 별명.<sup>13)</sup>

주건의 정립.

먼 앞을 내다보는 형안.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끝까지 관철하는 실천력.

과단성 있는 지도력.

의지의 인 신념의 인.

예를 들어 『선봉』 1946년 1월호 p. 9에 실린 “연두소감”에는 사회민주주의혁명단계로 보았으며 토지는 소작권 설정에 의한 국유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진보적 이념이 암살로 뜻을 못 이룸.<sup>14)</sup>

공산당의 주장처럼 초기 한민당은 반동적 정당 아님.

단지 공산당이 너무 급진적이었으며 이를 제어했던 고하가 ‘우파만의 지도자’인 것처럼 몰림.

우리 모두의 민족 지도자.

실제 그의 이념은 극우는 아니었으며 민족적 우파였다.

그는 배타적이지 않았으며 원칙을 가진 민주주의자였으며 정치적 훈련을 강조하는 준비론자였다.

## 단파방송사건

송진우는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가 폐간된 이후에도 과거 동아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났다. 홍익범(洪翼範)도 그 중 한 명이였다. 홍익범은 1924년에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1931년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인테리로 1935년 동아일보에 정치부 기자로 입사하여 폐간될 때까지 근무했다. 어느 날 홍익범은 송진우를 찾아가 그 동안 전세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선교사 덕택이었는데, 그들이 잡혀가고 귀국하여 전세를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송진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홍익범은 송남헌(宋南憲)을 찾아갔다. 송남헌은 교편을 잡고 있을 때 홍익범의 아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서 서로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다. 홍익범의 얘기를 들은 송남헌은 경성방송국 편성과 PD로 근무하고 있는 양제현을 떠올렸다. 송남헌은 경성방송국의 어린이 방송프로와 가정물의 작가로 문학활동을 하고 있어 방송국

13)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62.

14) 심지연, “고하 송진우의 활동과 정치이념,” 『해방정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한국 정치 이념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주최,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후원 정치리더쉽 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년 9월 2일, p. 15.

에 자주 출입하고 있었으며, 아동문학 동호인인 양제현과는 교분이 두터웠다. 양제현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시했으나 은밀히 단파방송 내용을 알려주는 데는 동의했다. 그래서 송남현과 홍익범을 통해 단파방송 내용이 당시의 지도적 인사들에게 전해졌는바, 송진우, 김병로, 이인, 허헌 등이 주로 그 소식에 접했다.<sup>15)</sup> 그러나 단파방송에서 들은 얘기가 세상에 나돌면서 일본 경찰의 주시를 받게 되었다. 1942년 말에서 1943년 봄에 이르는 동안 경성방송국의 단파방송 도청으로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고 하여 대량검거가 일어났다. 이것이 경성방송국의 단파방송 도청사건이다.

이렇게 해외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고하 선생은 몽양의 건준 동참 제의에 “몽양 자중하시오. 우리에게는 중경에 임시정부가 있고 미국에는 구미위원부가 있소”<sup>16)</sup>라고 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실력배양론과 해방직전의 정세파악-독립준비론

미군 상륙 후 고하는 정치훈련 이른바 ‘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sup>17)</sup> 후일 탁치문제가 제기되자 그의 훈정론을 찬탁이라고 단정짓고 비난한 것. 탁치에 찬성한 적은 한번도 없음. 단지 방법론상의 이의를 제기한 것일 뿐.

훈정을 짧게 끝내자고 주장<sup>18)</sup>

15) 홍석률 선생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경로는 ①일제의 관제언론에 대한 재해석, ②외국 신문 탐독, ③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우리말 방송(콜 사인 KGEI)을 중심으로 한 단파방송의 청취(이는 ‘이승만 神話’까지 형성시킨다. 趙東杰, 『太白抗日史』, 312쪽.), ④미군비행기의 출몰에 의한 추측 등이다. 그는 일제 패전에 대한 인식이 1940년대에는 대중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홍석률, 『1940-45년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27-32쪽. 이외에 중경임시정부와의 연락이나 추방되기 직전의 선교사와의 접촉 등을 통해 독립공약이나 전황 등의 정보가 전해져 국내인사들의 일부는 패전사상을 형성하고 반전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단파 수신기를 보유한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송된 Voice of America 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1943년까지는 대개 알고 있었다. 水田直昌(口述)-土屋喬雄(質問), 『第一話: 總督府財政金融の基礎概念』, 水田直昌-土屋喬雄(編述),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東京: 友邦協會, 1962), 25頁. 그런데 이 방송을 청취하여 ‘경성방송국 단파사건’으로 체포된 송남현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방송국 직원 성기석은 1941년 봄 우연히 해외 우리말 방송을 청취했고 송남현은 1942년 6월 초단파방송을 통해 ‘백두산호랑이’라는 타이틀로 하루 세 번 30분간 보내지는 이승만의 육성을 들었다고 한다. 이 소식은 수십명의 사랑방 결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들 중 수십명이 1942년 말과 1943년 3월 25-26일에 검거되었다고 한다. 송남현, 『시베리아의 투사 원세훈』(서울: 천산산맥, 1990), 111-120쪽. 경성방송국 안에서만 약 40명이 체포되었으며 각 지방 방송국까지 합치면 1백 50명 가까운 한국인 방송인이 붙잡혔다. 함상훈, 백관수 등 증인신문을 받은 사람 1백 50명까지 합치면 3백 여명이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한다. 송진우, 김병로, 이인, 허헌 등도 단파방송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순수 단파수신기를 제작했던 성기석은 1941년 봄 김규식 등이 출연하는 중경 임정방송도 청취했다고 한다. 유병은, 「일제말 「단파도청사건」의 전모」, 『신동아』(1988년 3월), 591쪽. 한편 국제관계의 변동에 따라 해방을 얻으려는 이러한 인식을 일제관헌은 “조선인이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대성의 발로”라고 파악한다. 近藤劔一(編),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 66頁.

16)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풀이 되었다고 한다. 유병은, 「일제말 「단파도청사건」의 전모」, 『신동아』(1988년 3월), 588쪽.

17) 유진산, 『해뜨는 지평선』, p. 89.

18)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77.

그러나 당시는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매국적 연설을 하고 있다고 매도 당함.<sup>19)</sup>  
 실제로 지지 연설을 한 적은 없음.  
 그럴 시간도 없었음.  
 요인들간의 토론만이 있었을 뿐 그렇다고 이를 공개적으로 연설한 적 없음.  
 반탁의 방법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일 뿐.  
 그런데 당시는 양극적 분위기 아니었음. 조선공산당은 아직 찬탁 아니었음.  
 찬탁 아니면 죽음이라는 분위기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일탈함.  
 그것이 그렇게 암살할 만한 중요한 것이었을까? 따라서 이는 후일 자신들의 반대파  
 암살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함.  
 고하가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죽였을 것임.  
 정치투쟁의 희생물.  
 초대 국무총리감.  
 정치가로서의 경륜과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희생이 됨.

## 신중한 반탁

당시 분위기는 ‘독립 아니면 죽음’: 감정적 반탁.  
 현실적으로 보다 합리적-이성적인 반탁운동방법을 모색하고자 함<sup>20)</sup> 리얼한 상황  
 판단을 함.<sup>21)</sup>

임정의 감정적 반탁과 미군정의 질서 교란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라는 양극화된  
 대립구조 속에서 고하는 중재를 하려 함.  
 국민운동을 통해 반탁을 부르짖되 과격한 반탁운동을 하여 미군정과 충돌하는 불상  
 사는 피해야 함.<sup>22)</sup>

## 이완범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역임.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교수.

19)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증보판 (서울: 나남, 1989), p. 202.

20) 심지연, “고하 송진우의 활동과 정치이념,” 『해방정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한국 정치 이념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주최,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후원 정치리더쉽 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년 9월 2일, p. 12.

21)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증보판 (서울: 나남, 1989), p. 202.

22)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송진우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p. 483.